

#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권진숙외 5인\*

## < 목 차 >

- I. 한국적 가족치료의 모색
- II. 한국문화와 가족치료적 요소
- III. 한국적 가족치료를 위한 제언

## I. 한국적 가족치료의 모색

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한 가족치료는 현재 임상사회사업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한 정신치료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의 영역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가족치료의 우리문화에의 적용이 얼마나 타당하며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외국의 특정 이론이나 기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우리문화에의 적합성에 대한 탐색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론이나 기법의 발전은 물론 우리사회에서의 효율적 활용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엄예선<sup>1)</sup>은 한국문화를 “가족주의 문화” “가족치료문화”라고 지칭하고, 따라서 가

---

\* 권진숙, 박미은, 박영희, 서미경, 윤명숙, 최현미(가나다순)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박사과정

1) 엄예선, “가족치료의 소개 및 한국문화에서의 가족치료의 적합성,” 인문과학논총 5집, 서울여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0, p. 203

족치료는 한국문화에 정착되어야 할 중요한 정신치료책들 중의 하나로서 우리문화의 독특성에 비추어 올바르게 실시되기만 한다면 서양에서 보다는 훨씬 더 잘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가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문제해결 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은 가족을 치료과정에 개입시키는 방법에 익숙한 점 등이 그것을 증명해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족주의 문화” “가족치료문화”란 어떤 특성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특성들은 가족치료이론들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의 말대로 우리문화의 특수성에 맞추어 올바르게 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가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의식구조와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가족치료 이론이나 기법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리민족의 정서나 사고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되는 민속, 유교, 기독교를 중심으로 우리의 의식구조와 문화적 특성을 살펴본 다음 각 종교나 름대로의 문제인식방법과 문제해결 방법들을 찾아봄으로써 가족치료의 우리문화에의 적용가능성은 물론 효율성까지도 고려, 탐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하에서만 효과적인 가족치료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깊이 있는 연구로서의 한계는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주제로 다루어진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하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포착하는 것도 일차적으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II. 한국문화와 가족치료적 요소

### 1. 무속신앙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질병을 종교적, 주술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치료방법들을 단순히 “비과학적”이라는 이름아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

고 있는 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부영<sup>2)</sup>은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발병과 치료를 검토하여 죽은자와 산자의 '이해관계'란 상징적인 문맥에서 무속의 치료를 보았다. 즉 '한'이 있는 사람이 죽어서 된 원혼이 사람에 붙으면 병이 되는데 무당이 이를 처리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김광일<sup>3)</sup>은 굿의 실제적, 심리적 예방·치료효과를 지적하였다. 단 이들 연구에서 공통되는 것은 이러한 것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이나 유지가 치료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병의 원인을 알아서 제거하는 것이 치료인 점은 현대의학이나 무속신앙의 구조상 일치한다. 현대의학은 병인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치료하지만 무속신앙에서는 선신이나 악신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치료한다. 이런 점에서 무속의 치료가 한국인의 인간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무속은 건강생활에 가치를 두고,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하고,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끊지 않으며 심지어 죽은 다음의 사후처리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가족치료가 병적인 면보다는 건강하고 예방적인 면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무속과 가족치료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가족치료자 기능을 하는 무당의 기능을 손진태<sup>4)</sup>는 시대적 분화와 함께 세분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병을 치료하는 기능자 (2)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술적, 종교적 의례를 하는 기능자 (3) 개인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예언자 (4)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기능자 (5) 인사나 운명에 대한 점복자 (6) 자신이 신이 되는자 (7) 궁중의 무관이라고 하였다. 이들 무당이 주로 하는 일은 점, 푸닥거리, 살풀이, 굿등을 통하여 신들과 인간사이에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고 인간이 바라는 바대로 신이 도와 주도록 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무당들은 심리화학적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다. 점의 경우 이것은 현대의학의 진찰과 진단에 해당된다. 병의 원인이 진단되면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이 내려진다. 처방방법으로는 (1) 손비빔 (2) 푸닥거리 (3) 살풀이 (4) 병긋의 네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방법선택은 가) 병의 정도, 나) 원인이 되는 신의 종류와 내용,

2) 이부영, "사령의 무속적 치료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 최신의학, Vol. 13, No. 1.

3) 김광일, "굿과 정신의학," 문화인류학 5권, 1972.

4) 김동욱의, 한국민속학, 새문사, 1988, p. 54에서 재인용.

다)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선택된다.<sup>5)</sup>

손비빔은 병의 성격이 가볍거나 경제사정이 빈곤할 때 행한다. 밥과 물을 떠놓고 무당이 여러 신들에게 빈다. 잡귀를 물리쳐 달라고 빌기도 하고, 조상신의 노여움을 달래기도 한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언제쯤이면 병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이는 대상체계를 가족으로 확대시켜 환자뿐 아니라 가족전체를 초점으로 치료한다는 점에서 가족치료와 매우 유사하다. 살풀이에 있어서는 치병을 위한 경우에는 급성질환을 치료할 때이다. 이때 옷 한벌을 환자에게 입혔다가 벗기고 칼로 그 옷을 감고 춤을 춘다. 그리고 칼로 악령(살)을 찢러 죽이거나 내쫓는 흉내를 낸다. 나중에 그 옷을 무당이 입었다가 태워 버린다. 이 역시 정신의학적으로는 살을 풀었다는 것이 적개심의 대상과 화해했다는 뜻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병이 낫는다는 암시를 주는 의미가 있다.<sup>6)</sup> 이는 systemic approach에서 볼 수 있는 의식(ritual)의 기법과 유사하여 이런 의식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인식도와 의미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례를 보자.<sup>7)</sup>

1971년 5월 14일 경북 청하면 청진 2리 최용식씨 집에서 아우 최종기(26세)의 사령을 위한 허재비굿이 행해졌다.

---(중략)--- 굿은 11거리인데 그중 문 굿에서는 낯건지기 굿과 허재비굿이 포함되어 있다. 낯건지기는 죽은 최씨가 부산에서 저인양 어선을 타고 어업하던 중 수사하였기 때문에 그 낯을 건지는 것이고, 허재비굿은 망자가 미혼으로 죽었기때문에 사후 결혼을 시키는 것임---(중략)--- 가족이 간단한 제물을 차린 소반을 들고 해안 모래사장 위에 놓고 배례를 하면 무당은 대나무 "낯대"를 세우고 수탉과 낯전이 든 주발을 바다로 던진다. 육지로 헤엄쳐나온 수탉과 주발을 상에 받쳐들고 가는 망자의 형을 따라 무당들이 행렬을 지어 집으로 온다. 닭과 주발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상징한다. 안방에 영혼을 모신다음 남자 무당이 염불을 하고 마당에서는

5) 김광일, 한국전통문화와 정신분석, 시인사, 1986, pp. 129-167.

6) 김광일, 전개서, pp. 149-167.

7) 최길성, 한국인의 조상숭배, 예전사, pp. 174-175.

무당들이 군무를 한다. 그리고 나서 방안에 모셔놓았던 인형을 내  
어 신랑,신부 인형을 각각 친족이 들고 초례를 한다.

이 곳에서 무당은 상세한 처방을 하고 전략을 짜며, 가족모두에게 각각의 task를 주는데 이는 전략적 가족치료기법<sup>8)</sup>과 일치하며, 과거의 해결되지 못한 family baggage를 현재에 끄집어내어 가족내에서 재처리함으로써 정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점에서는 Bowen의 접근방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곳에서 사용하는 닭과 주발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상징하며, 이외에도 대나무, 인형등의 많은 상징과 의식을 사용하여 무당이 적극적, 의식적인 치료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이테리 가족치료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은 일정한 생애와 죽음, 그리고 사후의 존재양상등 사생관을 가지고 있다. 생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과의례이고 이중 장례와 관련된 무속의례로서는 "자리걷이"(집가심)이라는 것과 "지노귀 굿"이 있다. 이것은 남부지방의 "전셋김" "마른 셋김"에 해당한다. "고풀이"의 고를 푸는 의식, "오구굿"(경상도나 전라도의 무당들이 행함)의 넋전을 담은 주발을 놓고 시체를 상징하는 모형물 놓고 의례적으로 셋기는 것이 죽은자에 대한 산자의 감정치료라고 할 수 있다. 장례가 끝나고 난 그날 저녁에 사람이 죽은 장소에서 부정을 가시는 의례를 행한다. 아랫목에 상을 차리고, 죽은이의 뜻을 알아보고자 점을 치는 신대를 만들어둔다. 이것은 넋을 기리는 "넋대"라고 한다. 그리고 죽은 이의 형상을 알아보는 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밀가루나 쌀을 담은 그릇을 둔다. 저녁이 되어서 이런 준비가 완료되면 무녀는 죽은이를 상징하는 옷을 걸치고,넋을 내릴 종이술을 머리에 달고, 고리썩을 굽으면서 무가를 구송한다. 그러다가 죽은 이의 영혼이 내리면 죽은이의 뜻을 신탁한다. 살아있을 당시의 불행한 것이나 이세상에 미련이나 원망스러웠던 것들을 말하고 장례에 있었던 일이나 묻혀진 상태등을 말한다.<sup>9)</sup> 이러한 집가심 행사는 신에 대한 행사라기 보다는-이러한 것을 동원하여 사자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매꾸고, 나아가서 살아있는 인간의 감정처리,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사자에의 입문이라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죽음의 확인과 위안이라는 점이 중요한 목적이다.

8) C. Madanes, Strategic Family Therapy, San Francisco: Jossey-Bass, 1981.

9) 최길성, 전게서, pp. 235-246.

무속치료 특히 굿은 한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지만 병자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 이웃 그리고 마을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한 개인은 공동의식속에서 비로소 존재가치를 찾는 그런 전통적인 생활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굿은 각 개인을 상대로 하면서도 집단을 상대로 한다. “공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지나름대로 자기와 같은 처지를 느끼고 함께 슬퍼하고 또 기뻐한다. 참석자들은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같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함으로써 같은 형제로 느끼도록 한다. 또한 한 사람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숨어 있던 내면적인 문제를 표면화, 보편화시키게 한다. Speck과 Attneave<sup>10)</sup>에 의하면 문제를 가진 사람과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집단(가족, 친구, 이웃사람, 직장동료및 학교, 교회 소속기관등)이 하나의 치료팀(network intervenors)을 이루어 현재 개인이 처해 있는 곤경에 대한 창조적 해결책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즉 굿도 하나의 “사회망 개입”방법으로 볼 수 있다.

무속신앙은 환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물에 대한 문제에 까지 관심을 두는데,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위한 굿을 하는 경우에 부모의 불안심리를 치료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무속치료의 정신의학적 의미는 무속적 치료가 비록 원시적이고 주술적이긴 하지만 많은 의식과 상징 그리고 무당과 가족간의 경험주의적인 접근법을 이용하여 심인성 질환을 많이 치료할 수 있다는데 있다. 굿에서 볼 수 있는 정신치료 기제<sup>11)</sup>로는 암시와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이때 무당은 환자나 가족들의 울분과 괴로움을 터트리게 하고 같이 울며 공감하는, humanistic model에서 치료자가 환자와 상호작용하며 같이 붙들고 우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또한 제반응(abreaction)의 기제가 있는데 이는 조상에 대해 가지는 존경과 두려움의 양가감정중 두려운 마음을 조상과 직접 직면하게 함으로써 해소시켜준다. 한국 민간신앙이 현세이익적인 것도 구조적으로는 산자의 죽은자에 대한 직접적인 확대라는 사생관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는 원가족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해결을 강조한 psychodynamic model의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많은

10) R.V. Speck & C.L. Attneave, Family Network, New York: Pantheon Books, 1973, pp. 5-18.

11) 김광일, 전계서, pp. 149-167.

곳에서는 설득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 많다. 부모를 잘 섬기고 가정 화목을 이룩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등의 비교적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설득을 많이 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가족의 갈등과 불화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환자의 질병에 변화가 생긴다는 지극히 systemic한 관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2. 유 교

유교는 인도적 정신과 윤리도덕을 중요시한다. 유학은 인도주의사상 즉,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나 단순한 인본주의가 아닌 천도(天道)가 내재한 인간의 도리 그리고 현실에 발을 딛고 만물을 명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공명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사상이다. 천(天), 지(地), 인(仁: 전인적인 인간의 성격을 나타냄)의 3제가 그 사상구조를 이루며 천도가 인도(人道)에 내재하며 인간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sup>12)</sup> 유교적 가치관은 삼강오륜을 대표할수 있는 충(忠)과 효(孝)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나라, 가문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가족보다는 항상 가문이 앞서고, 자신보다는 가족의 체면과 가장(family head)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일에 민감하다. 이러한 가족주의사상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즉, 마음과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면 나라도 잘 다스리고 온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는 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유교에 바탕을 둔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가정 및 가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나라라는 보다 큰 사회의 인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족이라는 기본단위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체계적인 시야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유교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일체의식이다. 부와 자의 개체가 서구에서처럼 상대적으로 분리된 존재라는 생각은 한국사회에서 불가능했었다. 핏줄로 맺어진 이들은 복수의 개체가 아니라 단수의 일체이며 그 핏줄은 이미 죽고 없는 자들과 미래에 태어날 자들까지도 일체속에 포함시킨다. 이런 신념이 개발시킨 한가지 예는 조상의 죄를 자손 3대에 걸쳐서 받는일, 친부모의 상에는 무덤옆에 이슬이나 비를 가리는 초려(草廬)를 짓고 3년을 수묘(守墓)하는

---

12) 유승국의 역, 한국의 유학사상, 삼성출판사, 1983.

습속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가족의 일체의식은 어린아이까지도 효의 개념에 철저하여 자신의 입장보다는 부모 및 가문을 먼저 의식케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기준을 삼도록 하였다. 물론 이런 의식은 체계속의 중요한 부분인 개인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전체가족체계에서의 개인은 어느 집안의 누구라고 불리어지며 건강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분화되는 것을 해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 주며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행동이 파급시킬 결과를 미리 짐작가능케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졌다고 하겠다.

유교전통에서의 한국가족의 기본골격은 가장, 더 구체적으로는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을 한 단위로 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은 그 기본적인 구조(basic structure)를 중심으로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발달, 유지시켜 왔다고 볼수 있다. 부계혈통의 영속과 집안의 평안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장이나 행동은 극히 배제되며 가장을 중심으로한 위계질서가 분명하다.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다른 가족관계는 이에 종속되고 그 중에서도 고부관계가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sup>13)14)</sup> 특히 적계, 남자, 장자의 3원칙하에 가족원은 가문의 유지와 가족의 화목을 우선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각자의 역할 또한 분명하였다. 외적으로는 가부장권이 강력한 반면 가족행복의 중심적인 역할은 부인과 자식에 있다고 보고 그들의 인내를 강조하였다.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위하는 것이 주부의 역할이었고 주부는 자녀의 양육등 자신의 영역을 갖고 다른 차원의 가족의 중심을 형성하였다. 즉 부를 중시한 것이 권력구조라면 모를 중시한 것은 애정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권이 자녀와 부인에게 사회적 안정을 준다면 주부권은 남편과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을 줌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제 유교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국가족의 문제해결방법과 가족치료적 요소를 가장을 중심으로하는 부자관계와 가족관계중 가장 취약한 고부관계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가족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가장의 역할과 고부갈등해소를 위한 문제해결방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13)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987.

14)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92.



### 1)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유교를 바탕으로한 대가족제도 하에서의 가장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가정은 집안의 경조사 및 큰일의 모든 책임을 지도 감독하며, 그 책임만큼이나 무거운 권위를 가진 명실상부한 가족의 우두머리였던 것이다. 예들들면, 근세까지 대외적으로는 가장의 서명없이 공식적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었다. 대내적으로는 제례의 사제로서 가족의 관리, 부양, 분가, 입양, 교육등 공법적, 사법적 통제권을 인정받고 있었다.<sup>15)</sup> 가족 일체의식과 그것을 유지 계승하는데 필수적인 아동양육의 큰 부분이 가장에게 달려 있었다. 그 당시의 명실상부한 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로 대표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족내에서의 아동양육을 위한 그들의 주된 역할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교적 부자관계를 잇는 아동훈육 방법의 한 예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할아버지 좋아리치기"<sup>16)</sup>가 있다. 손자가 남의집 다된 호박에 말뚝을 박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할아버지는 아무말없이 손자를 앞세워 자신의 부친(증조할아버지)의 산소로 간다. 묘소앞에 다달은 후 할아버지는 손자를 묘앞에 세워두고 잠깐동안 숲속으로 사라졌다가 여러자루의 화초리를 준비해 돌아왔다. 곁에 질린 손자는 그것이 자신을 칠 화초리로 짐작했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겠다. 곁에 질린 손자가 기대하고 있었던 결과와는 너무나 역설적으로 먼저 묘소앞에 끌어 엎드려 눈물로 자신이 가장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서의 손자의 문제행동을 사죄했다. 손자에게 화초리를 쥐어주고 "아버님 불초자식의 손자가 남의 재물에 손을 댔사오니 그 벌을 아버님 앞에서 받으려 하옵니다. 하량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자신의 좋아리를 치도록한다. 이러한 훈육방법은 손자의 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손자의 문제행동을 즉각 치료되게 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손자의 문제행동은 영구적으로 치유되어 미래를 위한 아동양육의 교육적인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사례의 문제해결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징적인 면을 발견할 수

15)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16)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한국인은 누구인가, 상하권, 문리사, 1978.

있는데 그것은 손자의 문제행동이 그 자신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 가문의 문제, 즉 3세대 더 나아가서는 그 윗세대까지 잇는 세대간의 일체의식 및 ego mass, 손자훈육에 가장(할아버지세대)의 직접참여와 주도적 역할, 그들의 권위적 위치 그리고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의사소통방법과 치료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 수가 있다.

또다른 예로 아동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부모나 할아버지는 아동으로 하여금 회초리를 자신의 손으로 가져오게 하고,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평가가 포함된 적절한 처벌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의 특징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으므로서 어른 스스로의 감정적 개입을 최소화 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성적으로 갈등 혹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소를 엿볼수가 있으며, 아동스스로 사건을 재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적 방법으로 사고수준(thinking level)의 통찰력을 갖게 도와주는 점등이다.

## 2) 고부관계를 중심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둘 다 부계가족의 비혈연자로 외부에서 혼입한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어 가족의 구조상 가장 가까와야 할 여자이지만 동일한 신분, 동일한 입장이 오히려 양자의 경쟁, 대립, 갈등의 원인이 된다. 고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효와 가족의 화목을 중시하는 가족의 규칙에 따라 며느리가 인내하여야 하였다. 특히 명심도감에서도 장유유서는 하늘이 정한 차례여서 사물의 바른 도리를 어기고 도를 상하게 해서 안 된다고 가르쳤다.<sup>17)</sup> 며느리는 시가에의 적응이란 심리적 고충외에 시가족에게 봉사하여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 더욱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며느리의 입장을 가장 동정하는 사람이 남편이지만 그는 자신의 어머니또한 며느리의 입장으로 시집살이하고 자식을 위하여 고생한 것을 알고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효도는 자식된 도리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립하였을때 남편은 시어머니편에 들며 정히 입장이 곤란하면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예도 있다.<sup>18)</sup>

17) 이민수역, 명심보감신역, 을유문고 23, 을유문화사, 1971.

18) 이광규, 전게서, pp. 197-198.

부인과 어머니의 사이가 안 좋아 고민하던 아들은 부인에게 밤을 가서 어머니에게 매일 죽을 쑤어 드리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부인은 매일 매놓지 않고 죽을 쑤어 드렸고, 덕분에 영양이 좋아진 시어머니는 동네에 며느리를 자랑하고 다녔으며 결국 며느리가 효부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

위의 예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들 사이를 조정하여 가내가 화목하게 된 경우이다. 며느리는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한 악의를 누우셨을 것은 분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남편의 중재적 역할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교전통에서는 며느리로 하여금 상위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이며 시어머니로부터의 심한 시집살이가 친정에서 시가로 옮겨지는 성인식과 같은 의미로 받아 들이게 하였다. 즉 며느리의 힘든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원을 중재자로 사용하는 것이나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가족 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이다.

한편 장유유서의 윤리가운데 며느리는 자신의 억압된 심정을 해소하고 누적된 감정을 발산할 기회가 필요하였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어머니 센 집의 강아지 꼴' '바가지 굽는다' 라는 말이 있다. 며느리는 화풀이를 강아지에게 하거나 바가지의 요란스러운 소리로 자신의 억압된 스트레스를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우리나라 민요 중 농촌의 며느리들이 모여 김을 매면서 부르는 노동요에는 고된 시집살이를 노래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 많다. 또한 "시장군치기"란 부녀자들의 유희에서도 며느리들의 억압된 감정을 발산하고자 하는 풍습을 엿볼 수 있다. "시장군치기"란 널다란 웅기 그릇에 물을 가득히 담아놓고 바가지를 얹어서 띄운다. 네 명이 그 물박을 둘러 앉아 윗쪽 하나씩을 들고 리듬에 맞춰 물박을 치며 다음과 같은 끝바꿈 노래를 부른다.<sup>19)</sup>

---

19) 이규태, 전계서, pp. 195-196.

니 씨에미박 왕당그랑 똑 딱  
 니 씨누이박 쌍당그랑 똑 딱  
 니 씨고모박 품당그랑 똑 딱  
 니 씨할미박 호랑호랑 똑 딱

시집의 여인들과 며느리간의 심리적 관계의 낚임새가 이 “왕당” “쌍당” “품당” “호랑”이라는 의성어에 잘 나타나 있고 상징적인 매개체인 ‘바가지’가 매우 의미있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Duhl and Duhl<sup>20)</sup>의 경험주의 가족치료에서 사용하는 metaphor처럼 바가지는 며느리의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한 도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 불만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던 옛 부녀자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가족차원에서든 며느리의 어려움이 간접적이거나 표현되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족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즉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갈등의 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돌출구를 찾아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미덕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며느리의 고생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며느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에 익숙하여지며 어느 일정한 연령층에 도달하여 시부모들이 일을 맡길 수 있다고 인정하면 며느리에게 주부권을 넘겨 주었다. 득남하고 시부모에게 봉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컸으나 일단 이러한 힘든 단계를 통과한 후에 얻게 될 주부권이 여성들에게 보상이 되었다. 주부권을 가부장권과 비교한다면, 재산권을 포함한 가장 권이 가사전반에 관한 지배관리권임에 비하여 주부권은 가사의 소비권이며 직접적인 운영권이다. 주부권의 구체적 내용은 의식주에 대한 실권으로 주부는 뒤주와 찬광열쇠를 넘겨받고 안방을 차지하며 상류층의 경우 하인권속을 통솔하여 가사에 전념하였다. 주부의 시기또한 쉽지 않았으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가족을 위하여 희생함으로써 거가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결국 유교전통에서의 고부관계는 장유유서와 효를 중시하는 가족의 규칙에 따라 며느리가 인내함으로써 유지되었고 이로인해 가질 수 있는 억압된 감정은 노동요나

20) M. Thomas, *An Introduction to Marital and Family Therapy*, MacMillan: New York, 1992, pp. 218-222.

유희동의 매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소하였으며 며느리의 시기를 거쳐 주부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따라서 문제해결방식은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암시적인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고통을 시위하였고 놀이형식을 통하여 해학과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자신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와 권한의 증가등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유교문화에서의 문제해결방법과 가족치료적 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유교문화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을 가족관계로 보고 가족을 문제해결의 기본단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본주의적 요소를 바탕으로 인간을 물질의 주인이라는 가치체계는 인본주의/경험주의 가족치료의 기본가정과 일치한다. 건강한 가정에 대한 기본가정은 가문의 유지와 가족의 결속력으로 가족의 일체의식과 예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세대간의 일치된 자아의식은 Bowen이 지적하듯이 균형 있는 적절한 자아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Minuchin이 주장하는 가족간의 뚜렷한 위계질서와 경계, 그리고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구성원의 분명한 역할과 충실한 역할수행이 그러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owen과 Nagy가 언급하고 있는 세대간의 연계성, 특히 Nagy가 말하는 세대간의 축적된 업적같은 개념은 선행과 인내로 덕을 쌓는 유교적 신념과 일맥상통한다.

부자관계와 고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문제해결방법이 기본적으로는 매우 다르나 기법적인 면에서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아동훈육의 경우 치료자의 역할은 지시적, 직접적, 권위적이면서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갖는 모델(modelor)인 반면, 고부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간접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되게 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의사소통면에서 매우 역설적이거나 간접적 또는 은유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감정표현도 미묘하며 암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인 면에서는 처방(prescription), 의식(ritual), 상징적 매개체 사용(metaphor), 고난(ordeal), 치료자 자신의 사용(use of self), 긍정적인 의미부여(positive connotation)등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기독교

백여년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우리문화에 끼친 영향은 매우 다양하고 시대적으로 특징있게 전개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한국 기독교문화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가족치료적 요인들에 한정해서 보고자 한다.

첫째, 가족이 기본 단위가 되고 있으며 가족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부모 자식관계로 나타내고 있다. 즉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몸의 지체들로 비유하여 상호연관된 관계로 보았는데 여기서 기독교의 체계적인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sup>21)</sup> 또한 기독교 교리의 축소판이라 할수 있는 십계명중에서 세가지가 가정에 관한 것이다. (제4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10계명: 사람이 탐내서는 안될 항목중에 아내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가족의식의 한 형태로서 가정예배가 행해져오고 있는데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가정의 복음화와 성경과 기도를 배우는 신앙적인 면도 있지만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예배에서는 아이들이 가정예배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성구를 암송하거나 성경말씀의 실천을 위한 토론, 때로는 야외예배를 나가거나 음식을 나누고 예배후 재미있는 놀이를 추가하도록 권장하는데<sup>22)</sup> 이는 가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중심의 한 신앙의식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그 외 성경(에베소서 6:4, 골로새서 3:21, 에베소서5:22-33, 베드로전서3:1-7)에서는 사랑과 순종을 기본 덕목으로 하여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상의 행동적 덕목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둘째, 교육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들수 있다. 유교적 전통에 입각하여 남존여비의 가족윤리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 사회에 기독교의 전래는 여성의 정당한 지위를 인식시켜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주장하였다. 기독교신자로서 첩을 두는것을 금하였고 조혼의 습관을 교정하고 과부들의 재혼을 장려하는 노력을 하였다. 무엇보다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한 여성을 위한 신교육기관의 설립은 큰 사회적 공헌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이상의 개혁조치들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나 가정내 부

21) 엄예선, 한국가족과 가족치료, 한국사회복지학, 제 12호, p. 112.

22) 유상근, 기독교신앙입문, 명지대학출판부, 1980.

부의 평등한 권리 확보, 그리고 여성들이 한 개인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노력들의 근거가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세째, 사회망 (social network)의 활용을 들 수 있다. 기독교의 또다른 특징은 여러가지 다양한 공동체의 형성과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내에 조직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 특히 구역 (또는 속회)의 운영과 심방조직, 그리고 전도회활동을 그 대표적인 사회망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조직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신앙적으로 고찰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지지체계로서 교인들의 생활에 관련된 관혼상제, 그리고 여러가지 심리사회적 위기나 사건에 처했을 때 도움을의 자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심방은 단순한 가정방문이 아니라 그 가정이 갖고 있는 가장 내밀한 문제와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 때 목회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출산, 약혼, 결혼, 회갑, 생일, 병환 등의 경우에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축하하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한국적 미풍의 하나로 승화되었다.<sup>24)</sup> 이러한 심방의 역사는 초기 선교때부터 있어온 것으로 정용섭<sup>25)</sup>은 이러한 행위의 저변에는 각 종교의 제주를 불러다가 액땀을 하고 가정을 찾아와서 복을 빌어 주어야 했던 전통이 기독교의 전래과정에서 사라질 수 없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심방과 함께 구역활동 또는 속회활동도 선교초기부터 있어 온 것이다. 구역활동에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소수의 교인들이 한 구역을 이루어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을 나누고 각 가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신앙공동체이다. 구역식구끼리 음식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복을 빌어주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굳어진 한국적 미덕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sup>26)</sup>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문화속에는 기독교원리에 근거한 풍속, 습관, 예의 등 생활양태와 문화양태, 즉 이른바 기독교문화가 민속신앙이나 유교 등 우리의 전통 문화와 어우러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문화는 기독교인들이 위기에

---

23) 주재용, 사회발전과 개신교의 역할, 현대종교, 1984년 1, 2월호, pp. 33-41.

24) 주정인, 현대목회심방, 목양사, 1984, p. 101.

25) 정용섭, 교회갱신의 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p. 224.

26) 안재성, 속회활동의 신앙공동체 교육적 개선방안, 이대석사논문, 1991.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신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한 기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며, 혼자의 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위에서 언급한 신앙의 공동체, 비공식적인 지지체계의 도움이나 교회내에서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와 신앙상담을 통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7)28)</sup> 일부 교인들의 경우 부흥회나 기도회에서 안수기도, 안찰 등의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기복신앙에 매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해결방식에서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처한 위기를 성경적인 해석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며, 특히 상담의 대상이 되는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의 대처방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목회자들은 대처방안의 예로 성경속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인물들을 비유로 들거나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지시하되 그들이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고려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문제해결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은 그 문제의 의미에 대한 비유 (metaphor), 긍정적 해석(positive connotation)과 재구조화(reframing), 재명명(relabeling)기법의 활용이 특징적이며 치료자로서 목회자의 역할은 지지적이나 때론 지시적이고 구체적인 처방(system prescription)을 내린다고 볼 때 전략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에서 기독교인 가정을 치료할 때, 네트워크치료(network therapy)를 발전시켜 클라이언트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내 지도자, 구역이나 전도회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지지체계와 심방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문화에서 발전되어 굳어져 온 가족중심의 가정에배의식이나 성경적인 가족관계의 지침들과 기독교인들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재해석과 비유의 적용, 그리고 치료자의 전략적이고 지지적인 태도 및 지시적, 권위적인 역할은 치료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27) 양태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상담연구, 한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28) 김동걸, 가정문제를 중심한 목회상담조사연구, 고대 석사학위논문, 1979.



### III. 한국적 가족치료를 위한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문화의 핵심을 이룬다고 생각되는 무속, 유교, 기독교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와 특성들을 통하여 가족치료와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문화 나름의 독특한 문제해결 과정이나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거기에서 가족치료의 우리문화에의 적용가능성은 물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적 상황에 맞는 가족치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먼저 무속, 유교, 기독교의 관점에서 모두 한결같이 가족은 우리 생활의 기본단위로서 중요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교의 경우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 '家和萬事成'이라는 말처럼 모든 것의 근본을 가족에 두고있다. 또 유교는 수평적인 의미에서 가족의 일체 의식을 보다 큰 범위의 가정 즉 가문으로까지 연결시켰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의미에서도 후대의 자손은 선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아 가정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원들 간의 관계는 수평적이기 보다는 엄격한 위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무속의 경우도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독교는 대가족의 형태보다는 핵가족의 형태, 수직적인 가족관계보다는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관계를 가지는 수평적 가족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한 여성의 지위 향상은 유교 등의 우리전통 문화와는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문제를 보는 시각은 무속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원한 여부, 평등과 개인주의를 상징하는 기독교는 문제를 볼 때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유교의 경우 개인의 문제를 단지 그 개인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족, 가문, 혹은 그 지역사회의 문제로 간주하여 자녀의 문제일 경우 그 책임을 부모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보아 혈연관계가 없는 동네어른들까지도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한다. 또 선조와 관련하여 세대간의 업적과 과실의 연계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가족치료가 갖는 문제 인식이나 치

료과정과도 잘 통하는 점이라고 보겠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이고도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무속의 경우 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굿 등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식을 수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유교의 경우는 가문의 유지와 가족의 결속력을 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나 권위적인 가족의 규칙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을 중심으로 전 가족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시행하는 제례 시에 제례 자체를 통해서도 선조와의 관계를 통하여 문제를 고하고 해결책을 구하려고 하는 동시에 전 가족 성원 간에는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서로의 문제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된다. 더 나아가 동네 어른들을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기독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사제에 의한 예배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신도들 간에 밀접하게 짜진 지원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체계적이고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치료의 체계적인 시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겠다. 이들이 초점을 두는 시제는 무속의 경우는 과거와 현재를, 유교의 경우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기독교의 경우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치료기법면에서 볼 때 암시적이고 비유적이며 상징적인 간접적인 방법, 의식(ritual), 고난(ordeal), 처방(prescription)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유교에서는 제안(suggestion), 교육, 모델링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들도 많이 사용되었다. 무속, 기독교에서는 재명명(reframing), 긍정적 의미 부여(positive connotation)와 같은 기법들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상의 점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어떤의미로든 존재의 근거로서 가족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화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는 경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핵가족이라는 형태와는 달리 우리의 의식구조 밑 바닥에는 무속과 유교에서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가족의 개념이 내재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가족치료에 임한다면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과거 우리선조들의 문제해결방법 속에는 이미 일찍부터 체계적 관점이 내

재되어 있었다. 즉 개인 안에서 문제원인을 찾거나 문제행동 그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세대간 친척간 혹은 이웃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기독교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식의 지원체계들이 형성되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systematic) 관점에서의 도움방법들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세째,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해 온 구체적인 문제해결 기법을 볼 때 가족치료 기법과도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신분석적인 기법보다는 행동주의적이고 전략적이며 경험적인 학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위계질서가 중요하고 각자의 가족 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유교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에는 구조적 치료기법의 효용성이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가족치료는 우리민족의 문화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에 상당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에게 맞는 치료방법의 개발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